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화순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화순군이 광주·전남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해당 학교를 통해 화순군 교복 지원 신청을 받아 군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난 4월말에 관내 중·고등학교 14개교(942명)에 총 2억 8천여만원을 교부했다.

교복비 지급은 중학교는 학교 주관 구매 등을 통해 행정절차에 따라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이미 구입이 완료된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에게

중·고 14개교, 942명 학생 2억 8천여만원 지원 수업료·무상급식 등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박차

개별 입금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입학일(3월 2일) 기준 으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단 가인 29만6,130원 이내이다.

화순군은 교복비 지원을 위해 지

난해 화순군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군비 3억원을 확보하는 등 행정·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10월 27일)하여, 올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2월 19일)를 받았다

이 후, 학교 측과 지원방법 및 세

부 시행절차 등에 대한 실무 추진 협의회를 거쳤다.

학교에서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 등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5월중 교복 지원금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2010년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 교복비 지원까지 하게 되면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으로서 '명품교육도시 화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백운산 계곡 등 어린은어 방류

60여 명 참석...친환경 생태환경 보존과 수산자원 조성

광양시는 최근 수산자원 조성과 친환경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백운산 계곡과 하천(공양읍과 봉강면 서천, 옥룡면 동천)에 어린은어 14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광양을 체육회, 전남등부수협, 봉강면 청년회 상봉마을 영농조합 등의 지역단체 회원·인직원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계곡과 하천에 어린은어 14만 마리를 방류하고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수산종자 생산업체인 청수양어장(대표 장성문)에서 어린은어 3만 마리를 무상으로 지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은어는 주변 하천 등에서 성장해 가을철인 9~11월에 산란하며, 부화된 어린은어는 인근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지내게

된다. 이어, 내년 3월부터 5월경에 다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가을철에 산란한 후 대부분 생을 마치게 된다. 최병삼 해양수산팀장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5월부터 10월에 등자게, 잉어, 붕어, 뱀장어, 자라 등 다양한 품종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며 "친환경 자연생태계 복원과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족자원 보존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토산어종인 은어·참게·메기·동자게 등 총 367만 마리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으며, 섬진강과 동·서천 등에서 국내의 낚시 등호인들이 매년 방문할 정도로 은어 등의 수산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등부회본부장

순천교육지원청, 학교 운영위원회 및 간사 연수 실시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최근 순천시문화컨벤션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회 및 간사 6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로 '2018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이해로 지역 실정과 현안에 맞는 능동적 사고의 기반을 조성하고,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고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및 구

성, 기능,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참석자의 이해를 돕고, 숲 생태체험마을을 경영하는 김용규 여우순대표가 '숲에게 좋은 삶의 길을 묻다'란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윤종식 교육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순천교육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은 아이들과교사들이 함께 하는 교실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너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지원과 격려하는 정·꿈·끼를 키우는 행복순천교육을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석한 한 중학교 운영위원은 "오늘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숲 속 생명체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선정

순천시가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자체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38개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순천시는 시민참여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순천시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행복순천 정책개발, 속의 민주주의를 도입한 시민공감 정책 발굴,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30 중장기 발전 계획 등 시민들이 시정의 기획부터 결정, 참여, 평가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해양 실�크로드 거점 '영산포' 도시재생 총력

주민 중심 원탁회의 개최...젊은 층 유입 방안 아이디어 도출



나주시는 영산포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도를 위해 지난 10일 주민과 함께 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주민협의체 회원, 청년, 상인,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교환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나주 영산포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영산강을 통한 해운의 요충지로 중국, 일본 등 국제적 해운의 거점지역으로 꼽힌다.

나라의 조창으로 천년이상의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해양 항만 도시로 번성기를 누렸던 곳이나, 해운의 길이 막혀버린 근현대에 급격하게 쇠락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안

된 주민 의견을 영산포권 도시재생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원탁회의에서는 2017년 개발한 도시재생 사업 및 새롭게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생구역 재획정 문제, △청년 창업 공간 해소, △도심 내 주차장 공간 조성, △근대 청년몰 △죽전거리 활성화 등 젊은 계층을 유입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방안들이 중점 제안됐다.

시는 주민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영산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확정 후 지난 해에 이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제도완전 방침이다.

영산포권 주민 A씨는 "지난 수 십년간 지속된 도시 쇠퇴 문제를 문제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영산내해 시절, 찬란했던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민 간 화합과 단결에 힘써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무지개다리' 경관조명 설치

내달까지 설치 마무리...야간 조명쇼도 연출 예정

광양시 증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무지개다리'에 화려한 야간 경관조명이 입혀진다.

시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무지개다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한다

는 것. '무지개다리'는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와 이순신대교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길이 300m, 폭 4m 규모로 건립해 지난해 6월 정식 개통했다.

무지개 다리에 경관조명 설치가 완료되면 광양의 전통과 문화, 자연, 산업, 역사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을 주제로 평일에는 3회, 휴일에는 5회씩 5분간 야간 조명쇼

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0년까지 160억 원을 투자해 길호대교~금호대교 해변 9.4km구간에 달빛광장, 삼학섬수변공원, 아이언테마로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볼거리와 놀 거리, 쉴 거리 등의 특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재희 수질환경팀장은 "이번 무지개다리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조형물이 설치되는 1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무지개다리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등부회본부장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